

하루를 시작하며



부희식 칼럼니스트

안(眼)이라는 것은 눈을 뜻한다. 안목(眼目)이 있다 없다라고 말 할 때에는 눈(眼)자와 눈 목(目)자를 함께 쓴다. 눈 목(目)이라는 것은 모든 생류(生類)가 공통적으로 지니는 오관(五官)의 하나를 말하는 것이지만 '안(眼)'이라는 것은 '목(目)'을 통해서 외부 세계의 사물을 살필 줄 아는 지적능력의 개념인 것이다.

사람마다 눈은 다 지니고 있지만 안목(眼目)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 안목은 그 사람됨과 수준과 능력을 보여준다. 이른바 신·언·서·판(身·言·書·判)의 조건을 얼마만큼 갖추고 있는

눈(眼)의 또 다른 의미

나, 따라 인격과 거의 정비례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안목의 높고, 넓고, 깊고, 원대하기를 국민들은 기대한다.

안목이 높으면 시계고도(視界高度)가 높아지고 안목이 넓으면 시계반경(視界半徑)이 넓어지며, 안목이 깊으면, 사려의 깊이가 있고, 안목이 원대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통괄할 수 있어, 밝은 세상을 상세하게 설계해 나갈 수 있다.

지도자의 안목(眼目)을 도안(道眼), 정안(情眼), 물안(物眼)으로 구별하고 후세 사람들을 깨우쳐 주며 살아간다.

첫째 도안(道眼)이다. 도안인은 옳고, 그른 것을 으뜸으로 볼 줄 아는 안목의 소유자를 말한다.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사물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법칙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가리켜 유물유칙(有物有則)이라고 한다. 불이 위로 타오르는 것을 임상(炎上)이라고 하고, 물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을 윤하(潤下)라고 한다.

인간을 비롯해 미물(微物)에 이르기까지 그 나름의 생존의 법칙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도안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도안이 없는 사람은 사리(事理)의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측면에서 요구되는 가치기준이 상응하는 주격(主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내세운다는 것은 조직발전을 위해서도 부적절하다.

둘째 정안(情眼)이다. 정안은 수시로 느껴지는 정감에 따라 애증의 기준을 척도로 삼아 사물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애증을 으뜸으로 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말하기를 상황판단을 하게될 때 팔도 안쪽으로 굽는다고 한다. 팔은 생태적으로 보았을 때 밖으로 굽을 수는 없다. 그러나 손바닥도 세우고 일도양단하는 식으로 옳고 그름을 판가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굽은 안으로 굽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안쪽에 사심, 사정, 사욕, 사리, 사연 등의 심리적 제약인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물안(物眼)이다. 물안자는 흑백을 변별하지 못하고 청탁을 혼돈하는 것을 말한다.

물안이란 눈대중으로 사물의 진부를 판단하려는 경향을 지니기 때문에 위험천만하기 이를 데 없다.

물안자(物眼字)는 출신수범으로 본을 보여줘야 함에도 위정자들이 먼저 판가르기 실정을 쏟아내는 것을 목도하다 보니 검수한 추기경이 말씀이 떠오른다. "가슴의 눈으로 인간을 보는데 70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얼마나 아담하고 힘이 되는 메시징인가!

사설

정부 여당은 4·3특별법 개정 의지 있다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오르내릴 때마다 착잡하다. 마치 '희망고문'처럼 다가오기 때문이다. 지난해만 해도 21대 국회가 출범한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기대가 컸던 탓인지 물거품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했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한 것이다. 1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되자 다시 2월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과 오영훈 국회의원이 오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에 나섰다. 오 의원은 11일 제주도청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 개정안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 의원과 원지사는 화해와 상생이라는 제주 4·3의 정신에 입각해 4·3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유족의 한을 풀어나가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원

지사는 배·보상과 관련해 "국가 책임이 흐려져선 안된다. 국민의 권이 법안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협력을 당부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정부와 4·3특별법에 대한 국가 배보상을 위차로 지급으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는 고사하고 법안심사소위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때문에 4·3특별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야당이 배보상과 관련 당정의 합의안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도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이어서 2월 임시국회 역시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상반기 최대 재정집행... 성과로 증명해야

새해 화두는 단연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로 꼽힌다. 코로나19는 내달 백신접종 개시와 연내 전 국민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추진돼 위기극복에 희망을 주고 있다. 경제 활성화는 수출 회복에다가 추가지수 상승 등으로 회복을 점칠 정도지만 지역경제 '맥'은 여전히 잔뜩 꺾였다. 이 시점에 제주도가 상반기내 역대 최고치의 재정집행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나서 주목을 끈다.

도는 11일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공공부문 재정집행을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를 견인하려 선제적 재정집행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올해 상반기내 재정집행률 목표치를 역대 최고치인 92%로 정했다. 지난해 재정집행률 90.92%를 기록, 전국 평균 89.93%를 웃돌며 전국 1위를 한데 힘입어 올해 최대치의 조기 재정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희생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이다.

우선 도가 공공부문 재정집행률을 높이고, 집행시기도 앞당겨 '고사'위기의 지역경제를 견인하려는 방침을 긍정 평가한다. 도는 조기 재정집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추진단을 구성, 관련 시책 발굴과 집행상 장애요인 해소·10억원 이상 사업 중점관리 등에 나설 방침이다. 여기에는 통합성과 관리시스템 가점제와 집행우수부서 인센티브 유인책 등도 시행해 부사별 조기집행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관건은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역대 최고의 재정집행률 목표 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일자리창출, 사회간접시설 확충, 소비 및 투자사업 확대 등 분야에 조기 재정집행을 확실하게 해 지역경제 회생을 가시화시켜야 한다. 연내 코로나19 위기 종식을 거론하는 마당에 도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과 한숨을 이어가게 해선 안된다.

뉴스-in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관심

도, 16일 정부 발표 주시

○...특별방역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플러스 알파가 오는 17일까지 예정된 가운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에 관심.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도내 1일 평균 확진자는 4.7명으로 4~10일 5.6명과 비교해 0.9명이 감소하는 등 지난해말 급증하던 코로나19 확산세는 감소세로 전환.

제주도는 오는 1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발표 이후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세부안을 공개할 계획.

이태윤기자

"너희 나라 상황은 어머니"

○...제주도교육청이 12일 '제11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 보고서'를 발간.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국제교류가 멈춰 선 가운데 최초 '온·오프라인 병행' 국제행사로 진행됐

으며, 10개국 28개 도시의 청소년들이 글로벌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각국의 문화를 교류.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평화의 섬 제주로서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 및 국제교류 플랫폼 구축의 계기가 됐다. 아이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기대.

송은범기자

재해위험 수목 정비

○...서귀포시가 시민·민생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생활불편 수목에 대한 정비사업을 예고.

서귀포시는 시민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강풍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해 제거해야 할 수목에 대상으로 신청 접수 후 현장조사를 거쳐 인명·재산피해 등 위험도에 따라 순차 정비한다는 계획.

허정환 공원녹지과장은 "재해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설명.

현영종기자

열린마당

코로나19 극복 위한 새마을 운동



전문수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회장

지난해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속에 마스크제작과 방역활동으로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부단히 애쓴 한해였다.

올해에도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생명의 위기이고 사회와 삶의 위기이고, 인간성의 위기인 복합다중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나누고, 공경문화를 꽃 피우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

코로나 상황이 끝나는 연말쯤에는 전국의 새마을지도자 1만 여명을 초청해 한라에서 백두를 넘어 지구촌 행복시대의 새마을운동을 선포하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

해 지역경제 회복에도 앞장서고자 한다.

세계인의 보물섬, 누구나 찾고 싶은 명품관광도시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 우리 새마을가족들은 비닐·플라스틱 줄이기, 중산간 방치폐기물 수거활동,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배달음식 다화용그릇 사용하기 등 생명살림운동에 헌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기후위기와 전면적인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각하고 생활을 바꾸고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생명살림 운동 실천에 정성을 다하겠다.

또한 우리 운동이 제대로 된 국민운동체가 되고 나 자신과 우리 이웃, 우리 후손들을 위해 모든 못 생명을 살리는 생명살림운동에 앞장설 것이다.

제주의 전통문화인 수놓음 정신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섬김과 나눔, 배려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겠다.

서로 공경하고 함께하는 화목한 공동체 문화속에 하루빨리 마스크 없는 세상이 오기를 바래본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흥양송공 성대(향년 78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고원순(향년 73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국식품의약학회 SCI A급 등록

빙의·신들림
중세로 고생하시는분
상담환영
전화·대면상담 무료
빙의천도 최고전문가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벽진이씨 순아(향년 94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용강동 가족모집용 매매
묘지허가 가능
연락처 010-6360-9167 010-7666-2310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단체반수시모집
즐거운 삶과 다이어트를 위하여
타라댄스교실에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